

12명, 6과인 역에는 정인이 7명이 배속되었다. 그리고 각 역에는 역리가 배치되었는데, 큰 길(大路)의 정인이 40명 이상이면 역장 세 명, 중간 길(中路)의 정인이 열 명 이상이면 역장 두 명, 작은 길은 중간 길의 예에 의하여 역장을 두도록 하였다.³²⁾ 역에는 크기에 따라 2-3명의 역리가 배치되어 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역에 소속된 역리를 비롯한 역정은 일반 주군현의 향리나 일반백성에 비하여 신분적 차별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역민들은 역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군현보다 부담이 많았으며, 역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일반 군현의 향리나 백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화할 때도 역민은 국가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강한 구속을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악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역이 육상교통의 연결처로 역할을 하였다면, 진(津)은 배를 통해 강을 건너주는 수상 교통로였으며, 원(院)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광양 지역 원으로 아마대부곡에 있었던 아마대원, 섬진원, 지장원(地藏院)의 세 곳이 있었다.³³⁾

세 곳의 원에서는 광양 지역을 거쳐가는 관리나 공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숙박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32) 『고려사』 82 병 2 참역 성종 2년.

33) 『신증동국여지승람』 40 광양현 역원.

제4절 고려 후기의 사회와 광양

1. 고려말의 개혁과 광양인의 활동

고려 후기 사회 광양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고려 후기는 무인 정권에 의해 고려 전기의 귀족중심의 사회가 무너지고, 지방사회의 변화가 눈에 드러나던 시기이다. 변화는 지방사회의 혼란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지방민의 의식의 성장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더구나 고려 후기 원 간섭 아래 발생한 사회적인 혼란, 왜구의 침략으로 인한 지방사회의 소용돌이 등으로 말미암아 지방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지방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생계는 유지하여 갔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고려 후기 사회의 변화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지방민의 성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무인정권과 뒤 이은 원의 간섭으로 고려 중앙권력은 그 부침이 잦았으며, 무인정권시대에 지방에서는 농민들과 지방의 유력자가 항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광양 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농민 항쟁이나 중앙권력에 대한 대항은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광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앙권력에 순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무인정권과 원 간섭으로 인하여 지방민들은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였으며, 농민층의 계층 분화도 심하여졌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지방민 가운데는 중앙으로 진출하기도 하여 중앙권력 체계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물론 고려 전기에도 광양 출신으로 중앙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이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고려후기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광양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하여 활동하였던 인물 가운데 기록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이무방(李茂芳)이다. 이무방은 충목왕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관계에 진출하였는데, 공민왕대를 거쳐 요직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정당문학, 문하평리 등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공민왕 23년(1374)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거(知貢舉)를 맡았다. 이무방은 공민왕이 죽은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조선 건국 이후 다시 관직을 갖게 된다. 그가 과거 시험을 주관할 때 급제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 건국에 기여하였던 조준(趙浚)인데, 조준이 조선 건국 이후 관직에 추천하였으며 이후 검교문하시중 광양부원군(光陽府院君)에 올랐다.³⁴⁾

이무방은 본관이 광양인데, 그의 아버지는 찬성사로 증직되었던 이인영(李仁英)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이인영이 증직(贈職)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의 활동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고 증직을 받은 것은 이무방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무방은 혼자 고생하면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의 선대가 중앙에 특별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무방은 본관을 광양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의 선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언제 중앙으로 진출하였는지,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 광양의 향리 출신 가계로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에서 활동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이무방의 활동과 가계를 보면 고려 후기 성리학을 수용하여 정치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일련의 신진사대부집단과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여겨진다. 이무방은 고려 후기 개혁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신진

34) 『태조실록』 14, 7년 8월 戊午 이무방 졸기 참고

개혁세력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에 동조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자신의 출신과 학문적 경향이 권문세족들이 정권을 독단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는 지방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청렴하게 지방을 다스렸으며, 중앙에서 대간(臺諫)으로 활동하면서 권력자에게 결탁하지 않고 소신껏 일을 처리하였다.

이무방이 중앙정계에서 활동한 이후 광양을 본관으로 하는 이씨는 광양의 대표적인 성씨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무방처럼 중앙정계로 진출한 광양 출신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 더 이상 확실한 사실을 밝힐 수는 없다. 기록이 불확실하지만 고려 후기에 활동하였던 서호(徐浩)와 광양과의 관련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씨는 광양현의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서호가 바로 광양현의 토성이었던 서씨 가계였는가는 알 수가 없다. 서호는 이천(利川) 서씨로 본관이 이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읍지에 의하면 광양군사(光陽郡事)였던 서희언의 자손이 광양에 거주하였으며, 서희언은 서호의 고조부로 기록되어 있다.³⁵⁾

만약 서희언이 광양의 지방관이었다면 광양 감무였을 것이고, 그 자손 가운데 광양에 거주하게 된 자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읍지의 서희언과 서호에 관한 기록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서호는 충목왕대와 공민왕 초기 원과 결부된 세력들의 불법을 바로잡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충목왕 3년(1347) 서호가 좌랑(佐郎)으로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관원이 되어 원나라 기황후(奇皇后)의 족제(族弟)인 기삼만(奇三萬)의 불법을 다스리다가 기삼만이 죽게 된 사건이 벌어졌다.³⁶⁾ 이 사건은 서

호가 원나라와 결부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고 하였음을 알려준다. 『고려사』에 보이는 서호가 바로 광양읍지에 보이는 서호와 동일 인물일 것인데, 서호의 본관이 광양이었는지, 이천이었는지 알 수 없으며, 서호대에 광양에 거주하였는지 아니면 그 선대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중앙에서 활동하던 서호가 광양과 관련을 맺고 있었거나, 맺었을 가능성은 있다.

35) 『광양읍지』, 「읍사」



사진2-41 : 이무방 옛 집터 추정 (옥룡면 옥동마을)

36) 『고려사』 37 충목왕 3년.



고려 후기 일반 농민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은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하나는 중앙권력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농민 수탈 가중이며, 다른 하나는 왜구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이다.

고려 후기 광양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한 인물들에 대하여 더 이상 알 수 없다. 하지만 고려 후기에 향리층 가운데 호장층은 재지품관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아 광양 지역의 향리층 가운데서도 품관층으로 전환하여 조선 건국 이후 지역의 핵심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유향품관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지방으로 왔거나 향리층에서 벗어나 품관이 된 사람들로 향촌사회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성장하여 나갔다.

한편, 고려 후기 일반 농민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고려 후기 일반 농민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은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하나는 중앙권력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농민 수탈 가중이며, 다른 하나는 왜구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이다. 농민에 대한 수탈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토지제도가 무너지면서, 농민에 대한 세금 수취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자신의 토지를 가진 농민은 국가에 대하여 수확량의 1/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 되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대체로 수확량의 1/2을 지대로 바치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후기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토에 대하여 권문세족들이 수조권을 설정하여 사전(私田) 화함으로써 일반 농민들은 몇 배의 부담을 져야만 했다. 광양 지역의 일반 농민 역시 중앙의 권문세족이나 지방의 권문세족과 연결된 세력 때문에 가혹한 부담을 짊어져야 했을 것이다.

농민에 대한 가혹한 부담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농민 가운데는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거나, 세력층의 농장에 몸을 맡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일반 농민층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농민층내 경제적 분화가 심해졌다.

2. 왜구의 침입과 광양

무인정권 시대와 이어지는 원 간섭기로 고려는 정치적으로 혼란하였으며, 일반백성은 사회경제적 모순에 직면하였다. 특히 고려말에 이르러 일반 백성을 왜구의 침략으로 더없는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왜구의 침략은 일반백성의 삶의 터를 짓밟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고종대부터 조선 초

기에 이르기까지 왜구가 침략함으로써 지역에 따라서는 행정 중심지가 바뀌기도 하고, 마을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고종대부터 이어진 왜구는 고려 시대에 대체로 밝혀진 것만도 490회 정도 침략하였다.³⁷⁾ 특히 우왕대에 집중적으로 침략을 일삼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가 140여 차례로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하였으며, 경기, 충청 지역이 120여 차례, 전라도가 50여 차례 정도였다. 현 전라남도 지역은 30여 차례 침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횡수는 왜구가 침략하여 온 횡수에 불과하고, 한 번 침략할 때 여러지역을 침략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는 더 많은 침략을 당한 셈이다.

광양 지역은 기록상으로 보면 왜구가 직접 침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인근 지역에 왜구가 침략한 사실과 주변 상황을 보면 광양도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무사하지는 못했다고 하겠다.

37) 전라도의 왜구 침략에 대하여는 「여말선초 왜구의 침탈상과 지역실상」(『전라남도지』 4, 1993)을 참고로 하였음.

〈표2-14〉 전남지역 왜구 침략 횡수

지역	순천	낙안	조양	보성	부유	고흥	풍안	구례	곡성	광주	동북	옥과
횡수	7	3	1	1	1	1	1	1	1	6	1	1
지역	나주	장성	능성	화순	담양	영광	장흥	도강	해남	탐진	목포	영산
횡수	1	1	1	1	1	2	4	2	1	1	1	1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를 중심으로 한 내륙 지역에도 왜구 침략이 빈번하게 있었지만, 그 보다는 해안 지역에 왜구 침략이 더욱 심하였다. 특히 순천 지역에 왜구가 자주 침략하여 왔다. 순천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면 왜구의 침략으로 전라도에서 가장 곤경을 겪었던 지역이 순천 인근 지역이었다고 하겠다.

왜구가 고려말에 집중적으로 출현하게 된 원인은 고려의 국내 사정과 일본의 사정이 서로 맞물리면서이다. 고려는 원 간섭기와 그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하였으며, 국가의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일본은 막부(幕府)의 변화로 막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이 틈에 막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무리들이 해적 집단으로 변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연안에 출몰하여 약탈을 일삼게 되었다. 왜구는 대개 대마도(對馬島), 일기도(壹崎島), 송포(松浦), 박다도(博多島), 적간관(赤間關) 등을 근거지로 하여 출몰하였다. 왜구의 규모는 크게는 400여 척의 선박을 몰고 오거나, 작게는 20여 척의 배를 몰고 오기도 하여 일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 한 척의 배에 20여 명 이상 타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한번에 수 백명 이상이 침략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왜구가 한 번 침략하여 오면 그 숫자면에서 보아 피해가 적지 않았으리라

38) 『신증동국여지승람』 40 순천도호부 궁실.

39) 순천에 속하였던 낙안은 왜구의 침략으로 백성이 달아나 기름진 땅이 썩대 밭이 되었다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40낙안군 궁실) 순천 인근 지역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



광양의 경우 조운선이 출발하는 해안포가 위치해 있었고, 연안을 따라 침략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왜구의 침략 대상지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순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15차례 정도 왜구가 침략한 기록이 보이고 있어 그 피해가 대단히 심했다. 순천 지역의 피해에 대하여는 순천 객관에 남수문(南秀文)이 남긴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³⁸⁾ “고려말에 정치가 잘못되고 나라가 위태롭자 해적(왜구)이 극심하여 경기를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바다에 이어진 수천 리 땅이 버려져 적의 소굴이 되었는데, 순천이 가장 참혹하게 화를 입어 빈 터만 남고 들에는 썩대만 우거졌으니 한심한 일이었다.” 연안 지역은 백성들이 피난하여 비게 되었으며, 순천은 가장 피해를 심하게 당하였다.³⁹⁾ 순천 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광양 지역의 피해 역시 심하였을 것이다.

순천 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것은 왜구의 빈번한 침략과 심한 약탈 때문이었다. 순천 지역은 경상도와 접하여 있었으며, 섬진강과 해안을 통하여 접근하기가 쉬웠다. 왜구는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순천 지역 일대에 자주 출몰하였다. 특히 순천 지역이 조운의 통로였다는 점은 왜구의 침략의 발미였다. 왜구는 순천 지역을 침략하여 조운선을 노략질하거나, 연안 지역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였다. 광양의 경우 조운선이 출발하는 해안포가 위치해 있었고, 연안을 따라 침략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왜구의 침략 대상지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비록 광양에 왜구의 침략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순천 지역의 왜구 침략 상황으로 미루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섬진강에 있는 섬진나루터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설화를 보면, 그 시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고려 후기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광양이 피해를 입었음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압면 도사리 섬진마을(일명 매화마을)에 위치한 섬진나루터에는 섬진강 이름의 유래가 된 두꺼비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고려말에 왜구들의 노략질이 극심하였는데 한 번은 왜구들이 강 하구로부터 침입해 오자 진상면 섬거에 살던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섬진나루터로 몰려와 울부짖자 왜구들이 놀라 물러갔다. 또 한 번은 강 동편에서 왜구들에 쫓긴 우리 병사들이 섬진나루 건너편에서 꼼짝없이 붙들리게 되었는데 두꺼비떼들이 강물 위로 떠올라 다리를 놓아 우리 병사들을 건네주었다. 뒤쫓아 온 왜구들도 두꺼비 등을 타고 강을 건너던 중 강 한가운데에 이르러 두꺼비들이 그대로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 왜구들이 모두 빠져죽었다’ 이런 일이 있던 후, 그때까지 다사강, 모

래내, 두치강 등으로 불리던 이 강을 두꺼비 '섬' 자를 써서 섬진강이라 부르게 되었다. (『광양군지』, 1983)

섬진강의 강 명칭에 얽힌 이 설화는 고려말 왜구의 침략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섬진이라는 명칭은 고려 시대에 이미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설화는 다분히 상징성을 갖는 것이지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설화를 통하여 고려말에 광양 지역에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였으며, 왜구를 격퇴하는데 광양의 힘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적어도 섬진나루를 왜구가 침략하였으며, 섬진 나루 앞 강에서 왜구가 빠져죽었다는 점은 당시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설화와 관련하여 우왕 9년(1383) 정지(鄭地)가 남해(南海)에서 왜구를 격파한 남해대첩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정지는 왜구 격퇴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던 인물로 우왕대에 순천병마사, 전라도순문사를 역임하면서 순천 지역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정지는 육지에서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왜구와 전투를 한 경험이 많았다. 특히 우왕 8년에는 해도원수(海島元帥)가 되어 바다에서 왜구를 격파하였다.⁴⁰⁾ 해도원수로 있던 정지는 우왕 9년 왜구가 120척의 배를 몰고 경상도 연안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에서 군사를 이끌고 섬진에 도착하였다. 경상도 합포와 전라도 광양 등 인근 연안의 모든 지역이 왜구의 침략으로 놀랐으며, 합포 원수(合浦元帥) 유만수(柳曼殊)가 정지에게 급보를 보냈던 것이다. 정지는 섬진 나루에 도착하여 군사를 정비하였으며, 왜구는 남해 관음포까지 진출하였다.

정지는 남해 관음포에서 왜구를 섬멸하였고, 이는 남해대첩으로 불려지고 있다. 정지가 남해에서 왜구를 섬멸하기 전에 섬진 나루에서 군사를 정비하고 공격 준비를 하였다는 점은 왜구 격파와 섬진나루의 연관성을 입에 올리게 하였을 것이다. 섬진강의 명칭과 관련하여 왜구를 격파하는 데 도움을 준 두꺼비 전설이 덧붙여진 것은 정지의 남해대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2-42 : 옛 섬진진

40) 『고려사』 113 정지 열전.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건국 된 이후 왜구의 침략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왜구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과 몇 차례의 대대적인 승리에 힘입기도 하였지만, 일본내 사정이 점차 안정되면서 왜구의 출몰 회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 태종대에 광양현 섬거역에 왜구가 침입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에도 간헐적으로 광양 지역에 왜구가 침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⁴¹⁾

41) 『태종실록』 8년 10월 26일

그러나 광양은 왜구의 빈번한 침략에도 불구하고 관청이 옮겨지거나, 행정구역이 유명무실하게 될 만큼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 이는 광양 지역민들의 왜구에 대하여 나름대로 방어하였던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필 : 남부대학교 사학과 교수 류창규